

세계와나

THE WORLD & I

8
1990

051.1
1242



● 미군 해체 解散해야 마땅하다 ● 미군 청탁 - 그들의 汚物정치구조 ● 對日 배상청
해야 한다 ● 한국의 暴力粗暴과 그 내업 ● 세육대의 '풀카사리'로 민체육진흥공단
記者志 ● 소련으로 간 북한亡命客들 ● 유럽의 統合精神 ● 서울대학교

〈소련으로 간 북한 亡命客들〉

소련으로 간 북한 亡命客들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소련으로 망명한 인사 18명이 지난 6월 방한해 화제를 모았다.

북한에서 소련으로 망명한 주요 인사들은 누구이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들은 망명의 길을 택했고, 소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소

련에도 반(反)金日成 한인(韓人) 집단이 있다. 이는 姜尙昊(80) 전 북한 내무성 차관과 朴秉律 전 강동정치학원장, 鄭尙進(鄭律) 전 문화성 차관 등 한때 북한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재소(在蘇) 북한교포 18명이 지난 6월 18일 방한한 후 26일 모스크바로 떠날 때까지 8박 9일간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남긴 증언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먼저 53년부터 57년까지 북한 내무성 차관을 지낸 姜씨의 증언이다.

그는 “현재 소련에는 정치적 망명을 한 전직 고위관리 출신의 북한인사가 40여 명 된다”면서 “이들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와 부자세습 등으로 순수 공산주의 이념에서 벗어난 김일성 정권이 개혁과 개방화의 길을 가도록 소련 내 여론형성 등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활동방법은 한국어 신문인 ‘레닌기자’를 비롯, 여러 신문에 글을

黃鍾澤(世界日報 '世界와 나' 기자)

기고하거나 방송출연, 사안별로 주요 도시에서의 공사간 회합을 통해 김일성의 독재를 비판하는 일 등이라고 소개했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타슈켄트, 알마아타, 하바로프스크 등 한국인(소련에서는 ‘고려인’으로 불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이같은 운동이 활발하다고 한다.

姜씨는 해방을 맞아 소련군 대위로 북한에 입국한 후 6·25 당시 강원도 도당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53년부터 4년간 내무성 차관, 59년 망명 당시에는 판문점 朝·中측 수석대표로 일했다.

그는 6·25 당일 새벽 1시 김일성 주재의 내각회의에 참석했을 정도로 북한에서 핵심인사로 활동했었다. 하지만 그도 57년부터 불기 시작한 반김일성 세력 숙청 대상에 끼여 망명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는 내무성 차관 시절인 56년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대두되자,

내무성 기관지와 로동신문에 ‘개인숭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공통성이 없다’고 기고했던 것. 이 글은 소련 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유명한 소련파와 연안파(延安派) 숙청이 임박할 무렵이라서 김일성에 가한 충격파는 커다. 이 일이 있은 뒤 그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재검토△새 권력자 김일성 신봉여부△반당종파분자들과의 회합 여부 등을 3개월 가까이 추궁받은 끝에 소련으로 망명했다고 한다.

그는 망명 후 소련내 교포신문인 ‘레닌기자’의 기자생활을 하며 ‘인삼주의 독소’ 등 글을 통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소련내 반김일성 인사로 지내왔다. 그는 “현재 소련에는 김일성부자의 세습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인사가 늘고 있다”면서 주로 외교관과 소련 유학생, 그리고 망명 인사들이 반김일성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북한대사관에서는

유학생들을 는가 하면 공 놓아 비행기 통행마저 막 시를 강화해 것을 차단하 천봉쇄’하라 다. 그런데 반김일성을 갖춘 김 강조했는데 어려움을 고 았다.

反김일성
이 같은

유학생들을 학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는가 하면 공민증(公民證)을 회수해 놓아 비행기 탑승 등 소련 내에서의 통행마저 막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감시를 강화해 북한에 개혁바람이 부는 것을 차단하면서 반김일성운동을 '원천봉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姜씨는 이와 같은 소련내 반김일성운동을 소개하면서도 "조직을 갖춘 김일성 반대 단체는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소련귀국 후 처신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반김일성 운동의 핵심 인물들

이같은 분석은 얼마 전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서울에 들른 美 코네티컷 대동아시아연구소장인 金一平 교수가 한 말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金교수의 설명은 소련내 반김일성 한인집단의 유래가 소련유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곧 6·25에 참전한 북한 젊은이 중 살아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적어 이들은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고 특별한 배려로 모스크바 유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로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인원은 12~13명 정도였다고. 그러면 중 56년 스탈린 격하운동이 시작되고 또 북한의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을 통해 소련파·연안파·국내파를 비롯한 모든 정적을 숙청해 버리

자 모스크바에서 유학하던 북한 학생들은 그때 "같은 사상을 지닌 공산주의자요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운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고 김일성의 처사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독재에 대해 10명이 모여 서로 토의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반김일성 집단이 생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金 교수의 주장은 소련내 반김일성 집단이 실제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초창기에 이들은 주로 성명서를 작성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흐루시초프 앞으로 보낸 일 등이었다. 즉 '소련의 20차 전당대회의 뜻은 스탈린 격하운동 등 개인우상화 배격

에 개인승
공통성이
글은 소위
명한 소련
이 임박할
충격파는
는 북한 당
대한 사상
신봉여부
여부 등
끌에 소련

고포신문인
하며 '인삼
축한체제를
반김일성
재 소련에
체제에 반
면서 주로
리고 망명
벌이고 있
나관에서는



'6·25 40주년'인 지난 6월 25일 동작동 국립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는 소련 거주 북한망명객들.

◎ 동행 취재

인데 북한에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 김일성을 반대하는 활동은 57년부터 본격화했다.

그들의 활동상을 안 소련 경찰과 북한 대사관원들은 이들을 잡으러 다녔다. 그래서 그들은 모스크바 근교 숲 속에 숨어 김일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반대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던 중, 결국 소련 경찰에 체포당하고 말았다. 그 당시 그들은 22~23세의 젊은 나이였다. 이들이 북한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기자 소련 당국은 소련에서 살 것을 허락한 반면 10명을 소련 각지로 분산시켰다. 농장으로, 카메라 공장으로, 시베리아 임산노동자로, 그리고 '레닌기치'의 기자로도 배치했다. 이들은 공민권을 박탈당해 외국 출입은 불가능 했지만 현재는 소련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들은 50대가 된 지금까지 반김일성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번 방한단원으로 온 H씨는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 '레닌기치' 신문사의 주필인 조영환 씨와 간부 몇 명이 당시의 대표적 인물들"이라고 확인하면서 구체적 활동상을 소개했다. "이들은 김일성의 비행을 담은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계속해서 북한의 실정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소련공산당 당당자들에게 알려주곤 했다. 심지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까지 성명서를 보낼 정도였다." 지금도 그들의 의지는 대단히 점차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궁지 또한 크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낸 비판과 평가는 소련의 대북한정책에 영향을 주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브레즈네프 집권 당시 소련은

북한을 철저하게 소외시켰는데 이것에 자신들의 노력의 성과였다고 자랑할 정도였다고 말한다.

또 지금 모스크바의 북한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반김일성 운동이 확실한 신념에 따른 것임을 당당하게 밝힌다고 한다. 어느 한 학생은 "선생님, 제가 하는 얘기는 북한의 현 대학생과 30대 이하의 젊은 사람다면 누구나 다

전 북한 문화성 차관 鄭尙道 씨는 "여기 공산주의자들이 왔는데 우리는 1인독재에 반대할 뿐이지 공산주의 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서 "자유스런 대화도 못 하는 김일성 정권은 가짜 공산주의다. 그런 사회주의를 위해 누가 투쟁할 것인가"고 반문한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곤 하더라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화와 관련해 소련 거주 소수의 북한 유학생들만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H씨는 "그 점이 의심스러워 북한 유학생에게 그 같은 생각이 일부만 갖고 있는 소수 의견이 아니라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자신이 유학 오기 전에도 지식인과 대학생 사이에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은 확실한 것이었다고 재차 다짐하더라"고 부언했다.

공산주의 이념은 여전히 신봉

이 문제에 대해 김일평 교수는 주목되는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소련의 북한 유학생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다른 세대로 확연히 구분하면서 김정일이 빨리 정권을 잡아 혁명을 가

져와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유학생들은 김정일 세력을 구축하는 열성분자들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혁명에 대한 기대감을 김정일이 모를리 없기에 북한도 불가피하게 개방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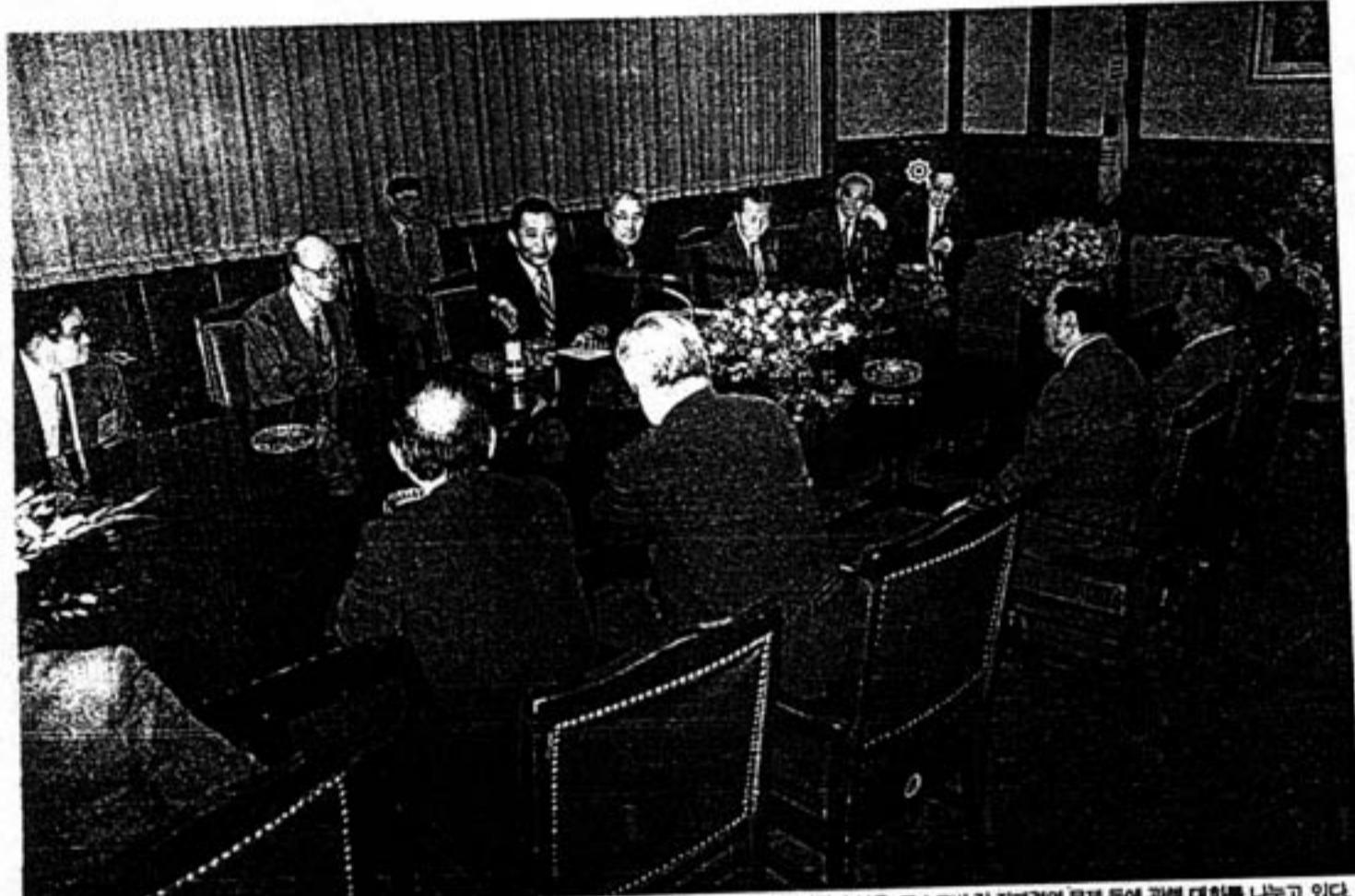
금 교수는 "84년 김정일이 중국을 다녀와서 아버지인 김일성에게 경제 개혁을 건의하면서 독립채산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곧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때 김정일은 김일성이 빨리 죽어야만 개혁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라는 말로 김정일이 개혁의지를 갖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 교수의 말은 소련에 거주하는 인 중에 반김일성 집단이 있으며 50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지만 김일성을 반대하는 집단이라고 하면서 반공주의자(Anti-Communist)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란 사실이다.

북한 유학생들의 반체제운동도 개인화하는 것은 인승배와 장기집권에 따른 비공산주의의 길을 걷는 김일성에 반대할 뿐이지 '공산주의' 그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소련 거주 반김일성 한인들이 한 한체제를 '변질된 공산주의'로 공격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공산주의 이념에 바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김일평 교수의 지적은 이번 방한 체소교포들의 언행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전 북한 문화성 차관으로 이번 방한 단장으로 온 정상진 씨(73·'레닌기치' 기자)는 "여기 공산주의자들이 왔는데 우리는 김일성 1인독재에



9일간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소련 거주 전 북한 고위관리들이 귀국 하루 전날 서울시청에서 高建 서울시장과 서울-모스크바 간 자매결연 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할 뿐이지 공산주의 이념자체를 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단정적으로 했다. 그러면서도 鄭 단장은 "자유 그런 대화는 물론이고 자기 나라에서 음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산주의냐? 김일성 정권은 가짜 공주의다. 그런 사회주의를 위해 누 투쟁할 것인가"고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련 카자흐의 알마아에서 살고 있는 정 단장이 걸어온 정은 소련과 한인들의 북한·일국과 고위관리 생활, 숙청과 그에 따른 망사를 진술하게 보여 준다.

소련에서 태어나 시베리아의 삭풍에서 몸을 일으켜 북한에서 문화부부장(차관급)에까지 올랐다가 숙

청당한 끝에 망명해 고회를 넘긴 나이에 현직 기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鄭 단장의 원적은 함북 명천(明川). 그러나 고향은 블라디보스토크이다. 일본의 학정을 피해 선친이 그 곳에 이주해 와 1918년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조선중학을 마치고 조선사범대학에 진학해 어문학부에서 우리말을 전공했다

이국땅 망국민으로 계속될 시련의 제1파는 1937년에 찾아왔다. 조선인 이주정책이 시작되고 그 와중에서 부친이 소련 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것. 스탈린 시대의 공포정책이 동쪽 끝까지 영향을 미친 시기였다는 것이 정 단장의 회고다. "말이 좋

아 중앙아시아로의 이주였지 실은 스탈린의 영토확장을 위한 유배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의 피와 땀이 거름이 돼 소련내에서도 잘사는 뜻으로 통하지만 당시만 해도 황무지였던 카자흐에 그냥 내팽개쳐졌던 것이죠. 참담한 때였지요."

이 와중에서도 정 단장은 대학을 졸업해 중학교 교원을 했다. 그러다가 소련 해군 육전대(우리의 해병대) 특무상사로 조선해방전쟁, 즉 대일전쟁의 선발대로 북한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정 단장의 이 경력은 북한에서 그의 '출세'를 뒷받침해 주는 밑거름이 된다. 그는 북한에서 소련군복을 벗고 '조국건설사업'에 열정

◎ 동행 취재

을 다했다. 韓·露 양국어에 능통하고 대학을 졸업한 인재에다 소련 '적기훈장'까지 탔으니 승진가도도 순탄했다. 함경남도 교육처장, 김일성대학 노문과 강좌장(학과장급), 문학예술총동맹부위원장 등으로 20대 후반 나아가 대단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다가 52년 국장으로 문화부에 들어갔고 그해 말 부부장(차관)에까지 올랐다. 32세 때였다. '주특기'가 문화방면이었기 때문에 韓雪野 洪命熹 李泰俊 崔承喜 具常 씨 등 문인들과 자주 접촉했었다고 한다(구상 씨는 이번 방한기간 중 경복궁에서 상봉했다).

그러나 전쟁후유증을 수습한 김일성이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이자 소위 소련파 제명대상에 그도 포함됐다. 57년 소련으로 쫓겨난 후 정 단장은 지금까지 알마아타에 살면서 '레닌 가치'의 기자, 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지금은 은퇴할 나이지만 2~3세로 내려갈수록 한글을 제대로 아는 기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아직 신문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기자라고 할까요. 5남매 모두 교포들과 결혼했는데 김일성의 홍보물을 보곤 아이들은 (큰아들이 44세로 탄광기사) 물론 아홉살 된 손녀까지 책에 왜 김일성 사진만 나오느냐고 할 정도로 김일성 우상화에 식상해 있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망명 이후 한 번도 북한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심정적으로는 남쪽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에게 조선인민은 그냥 조선인민입니다. 남쪽 인민도 동족이고 북쪽 역시 그렇습니다."

정상진 씨처럼 망명인사들은 북한을 찾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최

근엔 북한대사관에서 모스크바에 '남북조선 재소조선인 조국통일촉진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망명인사들을 대상으로 북한방문을 권유해 올해 들어서만도 100명 이상이 다녀왔다고 한다. 이 위원회 회원은 500여 명 정도인데 일부에서는 이번 방한단들에 서울에 가지 말라고 제지하기도 했다고 한다.

자기 한계 뚜렷한 망명객 활동

전 인민군최고사령부 간부국에서 6·25 무렵 준장으로 복무했던 심수철(70·타슈켄트 거주)씨의 이야기다. 앞서 말한 남북조선 재소조선인 조국통일촉진위원회에서 타슈켄트 거주 전 인민군 부참모장 龍成哲 중장, 전선후방국장 장철 중장, 그리고 군단 정치부장 李春白 소장 등 군출신 고위 소련 망명인사들을 포섭해 올해 5월 5일 평양에 데려갔다고 한다. 이들이 평양에 갈 것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심수철 씨는 "지금 평양에 가면 우리들처럼 김일성 개인숭배에 반대하다 회생된 우리 전우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니 가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개혁과 개방정치로 인민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때에 가야지 지금 가면 선전에 이용당할 염려가 크다"는 말과 함께 말렸지만 일가친척들을 만나보겠다면서 이들은 평양행을 결행했다는 것이다.

심수철 씨와 함께 이번 방한단 중 고급장교 출신으로 눈길을 모은 張學鳳 씨(72·타슈켄트 거주)의 말은 해방 후 북한에 들어온 한인계 소련인들의 생활상을 좀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장씨의 북한 거주 당시 지위는 북한군관학교(우리의 육사)부교장으



전 북한 문화성 차관 정상진 씨

로 계급은 대좌(대령급). 이후 제1항공사 부사령관도 지냈다. "해방이 되자 324명의 소련 거주 조선인들이 북한에 들어왔는데 이 중 군인이 1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교원, 기술자,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으로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조국건설에 힘썼다. 그런데 김일성 체제가 강화되면서 50년대 말 소련파 제거시 대부분 추방됐다. 그 중 51명이 소련으로 가지 못했는데 40명은 감옥에 가고, 현재 북한 최고재판소 소장 方學世 등 11명은 북한에 잔류했다. 나는 58년에 숙청됐는데 이유는 항공사 부사령관 시절에 盧今錫 중위가 남한으로 귀순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장씨는 이렇게 술회하면서 '조국건설에 바친 대가가 겨우 숙청인가' 싶어 소련으로 돌아간 뒤 소련 정부 경공업성 산하 파혁공장 공장장으로 일하면서도 마음의 용어리가 풀리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어 고르바초프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는데 최근엔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



전 강동학원 원장 박명필 씨



전 인민군준장 심수철 씨



전 북한내무성차관 강상호 씨

다. 일례로 6·25 전 조선중앙통신 사장과 로동신문 총주필, 6·25 때는 소장으로 정치군관, 6·25 후에는 김일성 보좌관을 지내다 60년 숙청된 후 모스크바에서 소련 여성지 부주필을 지낸 李文一 씨(78)는 유학생 등 젊은층의 반김일성 노선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평화연구원 金南植 연구 위원은 “해방 후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뿌리 내리게 하는 등 현재의 북한 관료주의의 기틀을 잡아 오늘의 김일성이 있게 한 주역들이 바로 방한한 자신들인데 북한의 체제 자체를 소련 망명객들이 부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반김일성 운동에 한 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한·소련간의 쟁점으로 등장

그러면 과연 해방 후 한인계 소련인들은 북한에 얼마나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추방됐는가? 그 수효는 얼마나 되는가?

북한연구소 金昌順 이사장은 북한

해방 후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등 오늘의 김일성이 있게 한 주역들이 바로 이번에 방한한 전 북한 고위관리 출신의 소련망명객들이므로, 이들에 의한 반김일성 운동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북한 및 공산권 연구 전문가들의 견해다.

에 들어온 한인계 소련인들을 ①직접 소련 군대의 성원으로 대일전(對日戰)에 참가한 사람 ②일제시 소련 첨보원으로 국내에 잠입한 사람 ③종전 후 군정요원으로 북한에 파견된 사람 등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소련군으로 직접 대일전에 참가한 인물들은 鄭律(이번 방한단장) 崔鍾學 등이고, 첨보원 신분은 朴昌玉·金元吉 등이며, 朴秉律(이번 방한단원) 李春白(소련 거주자) 등으로 모두 427명에 달한다고 밝힌다(이 숫자는 이번 방한단원 장학봉 씨의 324명 주장과는 차이가 남).

이들은 공산당의 행정기구·군사기

관은 물론 신문·통신·방송·출판 등의 사회 각 분야에서 오늘의 북한 통치꼴 격을 만들어 나갔다. 또 각 부서의 부(副)책임자 자리를 대부분 차지해 일제의 차관(次官) 정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소련파 시대’를 등장시켰다. 예컨대 奇石福(선전선동부 부장) 許彬(연안파 허정숙 밑에서 선전국 부국장), 南日(국내파 韓雪野 밑에서 인민위 교육부국장) 方學世(연안파 朴一禹 밑에서 사회안전부장) 등이 요직에 배치됐다. 곧 당·행정·군부기관에 배치돼 북한을 스탈린 팽창주의에 의한 소비에트화에 전력했다.

이들 가운데 통칭 43인조로 불리는 불세비끼 당조(黨組)는 로마넨코 사령부에 수시로 소집되어 사전에 소련 군정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관계로 국내파나 연안파들은 항상 피동적 입장이었다. 그로 인해 소련파들의 횡포도 심했다는 게 김창순 이사장의 지적이다. 연안파 두령인 金科奉이 46년 초 실시된 토지개혁 법령의 무상물수·무상분배의 급진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나라의 지주(地主)는 다른 나라

● 동행 취재

의 지주와 달라서 대체로 안 먹고 안 쓰는 방법에 의하여 지주가 된 사람들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상을 수설을 내놓았다가 소련파로부터 편장을 받아 무상몰수·무상분배가 실시됐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이들 43인조는 소련파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로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정복한 사람들인데 그 43인조 명단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방한단원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43인조원이었으며 또는 43인조원들의 활동이 어떤 것이었다고 밝힌 사람은 없었다.

김남식 위원의 말이다. “민족해방 투쟁을 지원한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 방한단들인데 자신들이 스스로 소련 군정의 혹막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련망명인사들의 증언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럼 소련내 50만 한인사회와 한인지도층들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한인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자치단체를 구성한 예는 지난해 5월 5일 ‘모스크바 고려인문화협회’ 창립이다. 이후 올해 4월 ‘재소한족대표자회의’를 거쳐 지난 5월 17일 ‘全蘇高麗人協會’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한인협회 조직 단일화는 모스크바 및 중앙아시아 등 각지에 이미 설립된 한인문화센터 등을 통괄 관리하면서 연해주(沿海州) 등에 한인자치공화국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사회 대표 276명이 모여 회장에 선출한朴미하일 교수(모스크바 대학·역사학)는 소련지식인사회의 영예인 과학아카데미의 정회원인데 한인자치주 설립에 누구보다도 열정적 이어서 교포들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고 있다.

지난 달 24일 학술회의 참가자 서 울에 왔던朴미하일 회장은 “북한이 국제적 비판대상에 오른 내부문제와 모순을 시인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해 재소 한인들의 시각이 어떠한가를 대변했다.

재소 한인 중 망명인사를 중심한 일부 한인들은 45년 이후 소련정부의 지시로 북한정권을 돋기 위해 북한에 파견됐다가 김일성에 의해 숙청된 인사들의 생사여부와 숙청이유 등을 해명해 달라는 청원서를 지난해 말 소련 정부와 당중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방한단의 강상호 씨와 전 북한 문화성 국장을 지낸 宋振波 씨(77)가 전했다. 북한에 있을 때 ‘새조선’잡지의 주필과 소련에서 ‘레닌기자’의 주필을 지낸 바 있는 송진파 씨는 “재소 한인들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참여해 그를 도와주라는 소련정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 정권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그 후 상당수 인사들은 지금까지 정확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행방불명 상태이니 소련 당국이 아들의 거취에 대해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탄원서를 접수한 소련당국은 이를 적극적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뜻과 함께 요망되는 인사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회신을 2회에 걸쳐 보내왔다고 한다. 이들이 소련당국에 1차로 제출한 생사확인요청자 주요명단은 서춘식(평북도당위원장), 김택영(사법부상), 박태준(노동부상), 박창옥(내각부수상), 김광(무역부상) 등 당·정 간부와 김원길(항공부참모장), 김칠성(해군참모장·소장), 정학준(인민군참모장·소장), 김만석(전시김일성근위부대장·소장) 등 군출신

인사를 포함해 32명이다. 북한은 1차 요청자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으로 응답해 왔고 2차 요청자에 대해서는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한다. 과거 남로당 원 양성학교인 강동(江東) 학원원장(47년 12월~50년 6·25때까지)을 지내면서 3천 명 이상의 남부군 빨치산을 양성했다가 숙청돼 현재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朴秉律 씨(83)는 “재소 한인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소련과 북한정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발전될 여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현재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는데 북한대사관 직원들은 자신을 만나면 꽁무니를 뗐다라고 말하면서 북한을 수용소 사회주의라고 단정했다. 영화 남부군에 대해선 휴식지에 불과할 뿐 사실은 더 과열했다고 평하기도.

주목받는 고려인협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소련 알마아타에서 발행되는 한글신문 ‘레닌기자’는 올해 3월 27일자 소련공산주의 청년동맹 기관지인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의 루친 기자가 쓴 북한방문기를 전문 게재해 한인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이 방문기는 북한사회의 모순과 허구를 날마다 꼬집고 있다. 결국 재소 한인들은 소련내 한국신문인 ‘레닌기자’ ‘레닌의 길로’ 등 신문과 카자흐 공화국 한글방송 등 언론기관을 김일성체제를 비판하는 무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 전소 고려인협회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힘은 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이번 방한단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소 고려인협회 결성이 우리



한 방문은 수령이 있다”
을 하는데 많다 허진(65)
현제 전소는데 그는 서울한민족
로자로 인정
6·25 당시 경주해 문화계
를 수행했던 명했는데 10
비판한 ‘金E
어 책을 일본
도로 그는 소
단의 리더격
당국은 암살
려 했다는 이
한 비밀로:
6·25 유전회:

이다. 북한은 1차
'행방불명'으로 공
자에 대해서는 아
한다. 과거 남로당
동(江東) 학원원장
(6·25때까지)을 지
의 남부군 빨치산
돼 현재 모스크바
씨(83)는 "재소
직임은 소련과 북
·쟁점으로 발전될
군했다. 현재 모스
는데 북한대사관
나면 광무니를 뺀
한을 '수용소 사회'
영화 남부군에
과할 뿐 사실은 더
도.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찾은 재소 북한망양객들이 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별회

승해 소련 알마아
글신문 '레닌기자'
소련공산주의 청
소몰스카야 프라
가 쓴 북한방문기
사회에 적잖은
문이다. 이 방문
순과 허구를 날날
국 재소 한인들은
'레닌기자' '레닌
기자'로 공화국 한
을 김일성체제를
고 있음을 알 수
고려인협회를
침은 북한에 대한
하고 있다는 해석

이 이구동성으로
결성이거나 우리의

남한 방문은 실무책임자인 許眞 씨의 노력이 커다"고 말한 점은 이같은 해석을 하는데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허진(65) 씨의 본명은 許堆培로서 현재 전소 고려인협회 부회장으로 있는데 그는 지난해 소련거주 동포들의 서울한민족체전 참가를 성사시킨 공로자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6·25 당시 정훈장교로 明洞 성당에 친주해 문화계 인사들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그는 전쟁 후 소련으로 망명했는데 10년 전 북한의 세습체제를 비판한 '金日成王朝 祕史'라는 일본어 책을 일본에서 출간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는 소련 거주 반김일성 한인 집단의 리더격이다. 책 출간 당시 북한 당국은 암살단을 파견해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한인사회에 공연한 비밀로 잘 알려졌다. 최근엔 6·25 휴전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와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를 지낸 李相朝 씨와도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고려인협회는 대외적으로 남북간의 대화창구로 알려져 있지만 내부는 허진 씨 같은 반김일성 인사들이 주류를 이뤄 북한 체제의 반대운동을 주도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소련내 반김일성 한인집단은 주로 북한 유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전직 북한 고위관리 출신의 망명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유학생과 교수 등 지식인들은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정신에 대비시켜 폐쇄된 정책과 개인우상화에 빠진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비해, 망명인사들은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알리면서 숙청에 대한 김일성의 과오 인정 등을 요구하는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다 소련언론의 북한체제 비판에 힘입어 '레닌기

자' 등 언론의 김일성 체제 비판, 전소 고려인협회 중심의 조직화된 힘을 이용한 대북한 개방 압력 등이 구체적 활동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방한했던 망명인사들이 소련내 반김일성 운동의 핵심인사들로 소개된 점은 잘못 이해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통일원의 權培 연구관 등 북한 및 공산권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들이 김일성에 반대해 망명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권력싸움에서 밀려난 것뿐이지 소련에 가서 생활은 그대로 영위한 것 아닌가. 김일성에게 당한 것이 서러워 그곳 신문·잡지 등에 김일성 비판의 글을 실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도 반김일성 집단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김일성을 싫어할 뿐이지 공산주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다.